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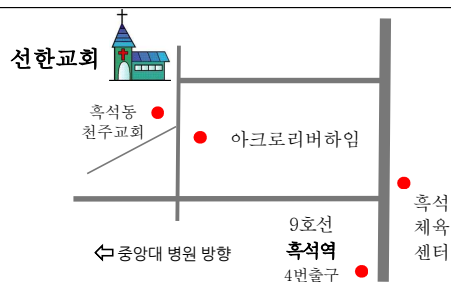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은 퇴 장 로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장 로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10장 (통일찬송가 34장)	
교독문	교독문 2 (시편 2편)	
찬양과경배	285장 (통일찬송가 209장)	
대표기도	윤호중 장로	
말씀봉독	마태복음 25장 1 ~ 13절	
설교	열 처녀의 비유 (임춘배 목사)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도	임춘배 목사	
성도의교제	다함께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지혜와 동행하라 (잠13:12-25)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처리회	오늘 예배후에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2. 예배안내	1. 주일예배: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말씀자료 제공/ 금요기도회는 영상 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범위: 마1장~눅7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4. 코로나 19 기도제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5. 교우동정	박종원 성도(최은주 집사, 자녀 채아) 모친 1월 11일 소천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6. 2021년 달력 및 말씀카드	2021년 달력과 말씀 카드가 제작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로 달력을 선택해 알려주시면 가정으로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전도사 개인 카톡으로 신청) 말씀 카드는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추어 나갑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삼키기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죄임을 고백하기를
--------------	---

가정예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찬송 :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통 369)

본문 : 시편 23편 1절

말씀 : 우리는 모두 부족함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삶’ 그 자체를 목표로 한다면 끝내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끊임없이 찾아오는 부족함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나의 목자 되신 삶, 오직 그 삶에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의 무게 중심은 ‘부족함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내가 양(羊)임을 아는 삶입니다. 양은 어리석고 무능하고 바보 같고 더럽습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발톱도, 날개도, 보호색도 없습니다. 고도근시라서 바로 앞의 양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양에게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은 선한 목자만 만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쉬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날개와 발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무능하고 어리석어도 문제없습니다. 목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은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물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그 삶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자만 있으면 건널 만합니다. 목자만 따르면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은 채 내 삶에 부족함이 많다고 투덜댁니다. 주님을 목자 삼은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주의 음성도 모르면서 자신이 주의 양이라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주의 음성인지 내 욕망의 소리인지 내 상처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를 불만족의 세계로 초대할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자꾸 바닷물을 먹이는 곳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과 불만족은 외부 상태가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주와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옵니다. 아무리 나의 창고가 차고 넘쳐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한없이 불안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이 더는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열 처녀의 비유 (마25:1-13)
서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에 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본론	1. 열 처녀의 비유 의미 (1)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음(1절) (2)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있는 자(2절) (3)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3절)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져감(4절) (4) 더디 오던 신랑이 밤중에 갑자기 오게되자 슬기있는 자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자들은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게 됨(5-10절) (5) ‘그러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13절) (6) 의미: ①주제는 ‘재림’(그리스도가 다시오심) ②신랑은 ‘그리스도’ ③열처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④한밤중은 ‘갑자기’ 임함 ⑤등은 ‘모두에게 주신 것’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할 것’ ⑥문이 닫힘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 2. 교훈 (1) 열처녀 비유의 의미는? (2)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3)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결론	항상 깨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박영근 장로

매일 Q.T.		시험받으심	날짜 : 1월 18일
찬양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본문	마태복음 4:1-11		
	예수께서는 육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참조, 마1:18), 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악에게 시험받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더욱 악에게 시험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간과 같이 죄의 권세를 체휼하시사 모든 인간들에게 변명치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악에게 친히 심판받으시기를 지원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으신 두번째 이유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죄를 이기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어 죄에게 종 노릇 하는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패배의 삶에 대해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시험을 받되 이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는 인간이 죄를 이기도록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죄에게 이기어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얻을 것임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악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즉 예수는 죄로부터의 승리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확실성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친히 육체를 입으신 상태에서 죄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묵상질문	나도 죄를 이길수 있다는 확신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삶”	
찬양과 기도	아 내 맘속에 (새 411)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간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한다.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기쁨이 오르락내리락한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조절한다. 온도 조절기에 따라 방 안 온도가 달라진다. 날씨가 더우면 조절기를 내리면 되고 추우면 올리면 된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능력이다. 그러나 온도계에 따른 삶은 환경에 따라 울고 웃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 반면 온도 조절기 인생은 다르다. 환경이 어렵지만 기도한다.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 사람들에게 의해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 삶에서 온도계의 영역이 커지면 온도 조절기의 영역이 작아지고, 온도 조절기의 영역이 커지면 온도계의 영역이 작아진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간다.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내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5:1~16
묵상포인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다릅니다. 팔복은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때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성도에게 진정한 복은 천국을 소유한 삶,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세상의 불의를 막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사명,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산상 수훈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리나요?(3절)
적용하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기 위해 나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부족한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진정한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팔복의 말씀을 따르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 세상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산상수훈 II	날짜 : 1월 22일
찬양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본문	마태복음 5:27-37		
	모세의 율법은 육체의 간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육체의 간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간음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관념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실제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따라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음심조차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참으로 우리의 육과 영을 다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본장에 언급된 새 계명 가운데 네번째로 주어진 것은 이혼의 금지입니다. 부부의 만남은 우연이나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이혼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께서는 음행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행의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 가운데 다섯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맹세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결코 맹세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유한하고 변하는 존재이어서 맹세를 지킬 수 없으므로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마지막 여섯번째 것은 비폭력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에 예수는 폭력으로 일을 해결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만사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처되 받게 되는 손해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질문	이 산상수훈에 맞추어 점수를 매기면 내 삶은 몇점인가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사역의 시작	날짜 : 1월 19일
찬양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본문	마태복음 4:12-25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되 권세자들이 있는 화려한 도시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소외되고 천시당하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 오신 자답게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는 사역을 시작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재 삶의 질고를 벗겨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죄의 족쇄 곧,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 주심으로써 영원한 천국에서의 평강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이러한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미래에 다가올 천국만을 전 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아울러 현재의 삶의 질고를 벗겨 주는 의무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하시면 이 땅에서 무엇이든 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사역을 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 참여하지 못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닦아 놓은 구속 사역의 터전 위해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인간들을 기꺼이 협력자로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협력 사역의 일환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묵상질문	예수님은 나를 왜 부르셨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팔복	날짜 : 1월 20일
찬양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본문	마태복음 5:1-16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 준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과 생활 현장이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새롭고 더 본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롭고 본질적인 새 현장이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완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언제나 오늘날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며 그 성취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새 계명이 가지는 대원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참조, 요일4:8).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러한 존재의 본질인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인간은 참된 천국의 삶을 현재의 삶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랑에 기초한 새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압축됩니다.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 속에 내포된 원리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것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이나 모세의 법을 넘어서는 새 계명 속에서 나타나는 개념, 곧 가난, 애통, 온유, 의에 대한 굶주림, 청결, 화평, 꾀박, 형제에 대한 사랑과 높은 도덕적 생활 등은 모두 의에 기초한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질문	팔복은 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산상수훈 I	날짜 : 1월 21일
찬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본문	마태복음 5:17-26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기초해 살인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그러한 모세의 율법이 주는 외적 규제를 넘어서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살인조차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에 대한 분노이며 그 분노는 상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미움조차 마음에 품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한 의식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거든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이전에 형제와 화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참된 화목이란 하나님과 인간간에 있는 벽이 다 허물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 계명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복음을 전파하시되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 삶의 규범은 모세의 율법을 포괄하는 매우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마땅히 그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사랑과 인내와 의로만 가능합니다.		
묵상질문	나에게 산상수훈은 잔소리인가요 삶의 기준인가요?		
오늘의 기도			